

# 국제로인의 삶을 맞이하며 북방은 삶은 로년기에 도

지난 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1990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45차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 인구고령화가 사회경제발전에서 주는 영향을 인식함에 기초하여 10월 1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계기로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일수 있도록 할것을 결정하였다. 인구로화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현상으로서 21세

기의 가장 주되는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2019년 유엔인구기금이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초에 2명이 60살생일을 맞고있으며 1년동안에 그 수는 거의 5 8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세계인구중 9명당 1명이 60살이상의 로인이다. 2050년에 가서는 그 수가 9명당 1명으로 늘어날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인구로화의 주되는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줄어듦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있다. 이러한데로부터 오늘날 년로자보호사업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로년기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적극 벌리며 자제로 수입증대를 위한 활동을 벌리고있는 결과 그들의 자립성이 공고화되고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높아지고있다. 반면에 로인들에 대한 차별현상도 우습하

게 나타나고있으며 전통적인 가정보호형태가 점차 사라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보호, 시설에 의한 보호가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적합한 보호대책이 없이 생활조건과 건강상, 성별상차별을 받으며 고독속에서 살고있는 로인들이 늘어나고있다. 하다면 공화국의 년로자들은 어떤 삶을 누려가고있는가.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왔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서 모든 공민들에게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실시하며 특히 년로한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보장되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봐줄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년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적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해마다 전승절이면 공화국에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뜻깊은 대화합인 전

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고있으며 사람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려고있는 전쟁로병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전사회적으로 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자리잡고있어 누구나 그들의 친자식이 되어 세심히 돌봐주고있다. 나라의 곳곳마다에 일떠선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에서 량만과 회회에 넘친

년로자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딘가나 인생말년에도 패기와 활력이 넘쳐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년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속에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국가에서는 그들이 백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고있다. 진정한 인생의 황혼기에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즐겁고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이런 현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하기에 많은 년로자들이 이 좋은 제도를 위해, 혁명선배라는 부름앞에 떨떨하기 위해 조국을 위한 헌신의 길에 모든것을 목숨까지 바쳐가고있다. 국가에서는 인민들에게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보장해주고 인민은 고마운 제도를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여기에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회주의참모습이 있는것이다.



2019년 촬영



2021년 촬영

리진덕

## 독자문답

재중동포 광영자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에서는 년로자들을 위해 어떤 시책들을 실시하는가?

공화국에서 년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제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이다. 그들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선배로 떠받들리며 살고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은 도덕과 료리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에는 일정한 로동년한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년로년금을 주고 각종 사회적혜택으로 보조금을 주며 로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양로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부양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 있다.

공화국은 년로자들이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 년로자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고있으며 조국을 위해 자기들의 피를 아낌없이 바친 전쟁로병들,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들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다. 년로자들의 생활은 물론 건강까지도 책임지고 보호해주는것은 공화국정부의 년로자보호정책의 중요한 요리의 하나이다. 장수자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만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에 들어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나라의 곳곳마다에 년로자들을 위한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이 새로 일떠섰다. 이 궁궐같은 보금자리에서 서그칠새없이 울려 퍼지는 년로자들의 량만과 회회에 넘친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는 그대로 사회주의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이다. 공화국에서는 국제로인의 날을 비롯한 뜻깊은 계기들에 년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활발히 조직하여 년로자들이 회열과 량만에 넘쳐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있다.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년로자들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세월이아 가보라지》의 노래를 부르며 여생을 즐기고있다.

올해 일흔여섯살 나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인 교수 박사 김순선생의 가정에는 자량이 많다. 김순선생의 형제들과 가족들속에서 8명의 박사가 나온것이다.

국제로인의 날을 맞이하며 가정을 찾은 기자에게 김순선생은 자랑보따리를 펼쳐놓았다. 누구는 전기공학박사이고 누구는 천문학박사 또 누구는 물리학박사... 하고 손으로 꼽아가는 주름잡힌 그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함뿍 어려있었다. 김순선생은 수여받은 학위학직증서들도 하나하나 펼쳐보였다.



김순선생 (왼쪽에서 첫번째)

## 로관학자간정의 자랑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김순선생의 가정을 찾아서◇

평범한 한가정의 자랑이라고 하기에는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는 수많은 증서들이었다. 《우리 가정의 첫 학위소유자는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1948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학위학직증서 10여명의 과학자들에게 수여되었는데 그때 남조선사회를 떠나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온 저의 아버지(김종회)에게도 수여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김종회선생은 해방전 수의학을 연구해보려는 꿈을 안고 일본으로, 부산으로 동봉서주하였다고 한다. 허나 차례전것은 망국의 갖은 천대와 멸시뿐이었다. 나라가 해방되자 김종회선생은 부산에서 가족위생연구소를 책임지고 민족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할 예국의 일념을 안고 많은 우역예방약을 만들어 공화국북반부에 보내었다. 조선의 과학자로서 우역예방약을 만들어 보내준것은 웅대한 일이였으나 늘들은 선생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연구소에서 내쫓기까지

하였다. 《과학자로서 안겨줄 품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38°선을 넘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 그런 저의 아버지를 몹소 만나주시고 미국놈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살자니 고생이 많았겠다고, 북반부에서는 선생과 같은 과학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아끼고있으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를 나라의 첫 학위학직소유자의 한사람으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그후 사람들속에서 《소

박사》로 불리며 수의예방약연구에서 큰 공로를 세운 김종회선생은 김일성상계관인, 원사, 교수, 박사로 자라났다. 고마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김순선생의 일곱형제들과 자식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자,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선생의 가정에는 원사, 교수, 박사중서를 비롯하여 학위학직증서들이 무려 43개나 된다. 김순선생은 말하였다. 《43개의 학위학직증서, 바로 여기에 복판은 우리 가정의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학위학직증서는 과학자의 명예칭호이지만 전에는 조국의 크나큰 믿음이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에 어머니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도당인정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강고리 바쳐갈 결심입니다.》 본사기자 홍병식



## 아름효자 부러울손가

—평양양로원을 돌아보고—

몇해전에 재미동포 김지영선생이 공화국의 평양양로원을 돌아보고 자기의 소감을 글로 남겼다. 그 글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 \* \* 조국방문기간 년로자들의 행복된 현장을 돌아보며 받아안은 감동은 헤아릴수 없이 컸다.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고래등같은 2층기와집, 심장생의 하나인 백학을 형성한 멋진 울타리, 취향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온돌침실과 침대침실, 비결이 없이 편리하고 가정적분위가 살아나

게 꾸려진 식사실, 운동실, 놀이터, 치료실, 영화관, 그 옛날 궁궐의 안뜰을 방불케 하는 아담한 내정과 록음악을 거진 공연... 손을 꼽으며 열거하는것은 어느 고급호텔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평양양로원이 이야기이다.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이 이런 호화로운 집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여생을 즐기고있다. 이곳에서 만나 본 보양생들은 저마다 자랑도 많았다. 지팡이를 짚고다니던 할아버지가 양로원에서 병을 다

털고 대지를 활보한다. 이발이 나빠 식사를 못하던 할머니가 이동치료를 나온 치과병원선생들의 정성으로 새이발소를 해놓고 10년은 젊어졌다. 복판은 그들에게 어찌 아홉효자가 부럽고 백자손손이 그리울손가. 꼭 별나라에 갔다온것만 같다. 재벌총수들의 별장도 울고 갈 이런 눈부신 궁전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의 보금자리라니, 직접 보지않았다면 백번을 듣는대도 절대 믿지 못했을것이다. 한해전 사업상우무로 한겨

울 머물렀던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하철역과 철도역들마다 무질서하게 들어선 《지합집》들에서 추위에 떠는 로숙자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식없는 늙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보호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도시미화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역주변에서 강제퇴거시키고있었다. 북부조국과는 명암처럼 대조되는 판이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란복과 함께 생각도 깊어진다. 수수천년 따라지신세를 면치 못하던 불운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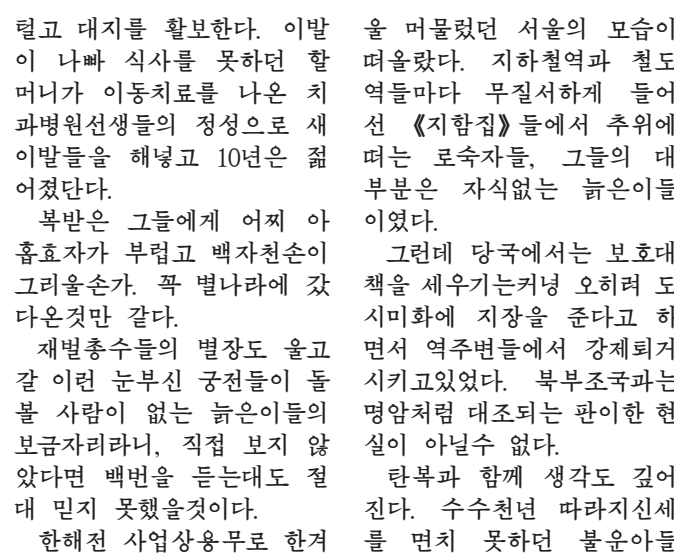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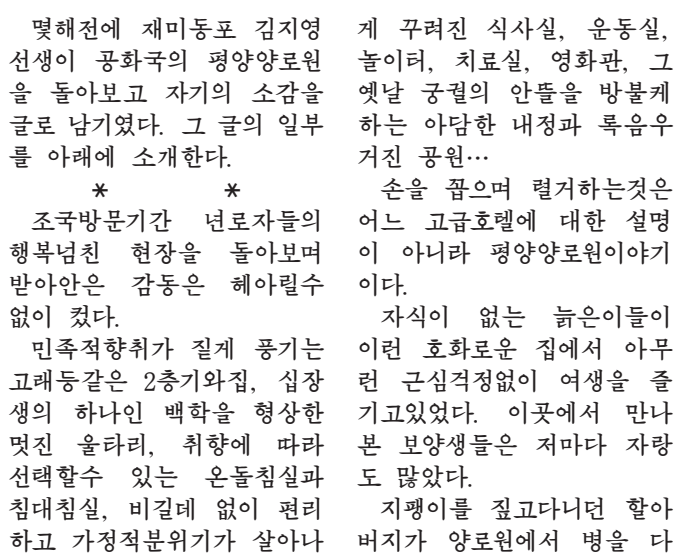
의 운명이 천양지차로 뒤바뀌었다. 어느 시대에서나 사회의 어두운 그늘속에 내버려뒀던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세상이 부림도록 만복을 누리려고있었다. 이곳 일꾼들은 물론 보양생들까지 따라서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감동적이었다. 새로 일떠선 평양양로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년로자들에게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궁궐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말 기쁘다. 우리는 년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년로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정정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정교고 살뜰하고 세심한 사랑과 정의 세계인가. 태양의 빛과 열에는 한계가 있어 음식과 동토대가 있지만 그이의 사랑에는 음식도 동토대도 없다. 평양양로원과 같은 년로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있는 북부조국에서만 일떠설수 있다. 이런 년로자보호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수 없다. 정말 인민이 사는 별나라이다. 조국인민들이 부럽고 년로자들이 누리는 락이 신비스럽기만 하다.

《전쟁같은 삶을 산다》 남조선로인들의 비참한 처지

남조선로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버티어낼 도리가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남조선로인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진다고 한다.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급속히 증가한다. 로인자살률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인의 소득빈곤률에 비해 로인의 소득빈곤률이 현저히 높은것과 관련된다. 이 땅에서 로인들은 지금 전쟁같은 삶을 살고있는것이다. 또한 남조선집지 《한겨레21》의 기자는 《한국판 (하루로인) 이 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로인빈곤문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고 실제 눈앞에 만난 빈곤로인은 정말로 비참했다고 하면서 취재를 하며 공포가 물려왔고 기사를 쓰며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했다. 지팡이를 휘감으며 돌고도는 악순환

남조선집지 《한겨레21》은 《가난해 일하다 다치고 가난해지는 로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늙은 몸으로 먹고살기 위해 다치는대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한 로인의 불쌍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로인은 66살나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아래로 떨어져 목과 척추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수술뒤에도 고통은 계속되었다. 회사에 부탁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으나 71살부터는 몸이 버티지 못해 그만두고 그만두었다. 로인재해는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인정을 받기 힘들다. 최근에는 로인이 위암관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잡지는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고 일하니까 다치고, 다치니까 더 가난해진다. 지팡이를 휘감으며 돌고도는 악순환이라고 썼다. 본사기자

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아픈 로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65살 이상 남조선로인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경우는 25.5%,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답변한 경우는 27.4%이다. 로인의



2019년 촬영